

교통사고 사망자 20년 만 최다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8일 '연합뉴스' 가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팬데믹 기간 과속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줄어들어 운전자의 위험 운전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7일 올해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9천56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전인 200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교통사고 사망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치솟기 시작했다고 NHTSA는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5% 불어난 4만2천915명에 달해 2005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로가 상대적으로 덜 붐비면서 일부 운전자가 경찰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여기고 위험한 운전 습관을 키운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NHTSA 집계에서도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사고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행자 사망은 13% 증가한 7천342명에 달해 198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숨진 사람도 5% 늘어난 985명으로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반대 단체인 MADD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길에서 일어나는 살인 행위를 멈출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농부들, 극심한 가뭄에 밭 갈아엎고 소 내다팔아”

미국 농부들 상당수가 극심한 가뭄으로 밭을 갈아엎고 기르던 소를 내다 파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연합뉴스가 CNN비즈니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농업계 로비단체 미국농업인연맹(AFBF)이 6월 8일~7월 20일 캘리포니아·텍사스·노스다코타 등 15개 주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가뭄 때문에 밭을 갈아엎고 작물을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의 24%보다 높은 것이며, 4분의 3에 가까운 응답자는 올해 가뭄으로 수확량에 타격이 있다고 밝혔다.

가뭄 때문에 나무와 다년생 작물을 없앴다는 응답자는 33%로 전년 대비 거의 2배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50%에 이르렀다. 텍사스 목축업자들은 사육 규모를 50%나 줄였다고 답했고, 뉴멕시코와 오리건에서는 각각 43%, 41% 줄였다는 응답이 나왔다.

최근 고유가, 비료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 농민들에게 가뭄과 폭



▲ 지난 6월 맨살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 시골에서 농부가 트랙터를 사용하여 밭을 갈아엎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염은 얽힌 데 덮친 격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AFBF는 미국 서부와 남부·중부 평원지대의 60% 가까이 심각한 가뭄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가뭄에 따른 경작·목축 포기로 공급이 줄 경우 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격 인상에 직면하거나 수입품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AFBF 측은 덧붙였다.

“가장 살기 좋은 주는 매사추세츠주”

매사추세츠주가 미 50개 주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됐다.

재정정보업체 '월렛허브' (WalletHub)는 16일 '2022 가장 살기 좋은 주' 순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교육 및 건강 여건 부문 1위, 안전 부문 4위, 삶의 질 부문 6위로 평가되며 총 62.65점을 얻어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는 뉴저지, 3위 뉴욕, 4위 아이다호, 5위 버지니아, 6위 뉴햄프셔, 7위 플로리다, 8위 와이오밍, 9위 미네소타, 10위 위스콘신 등의 순이었다. 캘리포니아는 27위에 이름을 올렸다.

월렛허브는 “주거비용, 취업 기회, 교육 및 건강 여건, 삶의 질, 안전도 등 5개 범주로 나눈 총 52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순위를 책정했다.”며 50개 주 모두가 저마다

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하위는 총점 39.77점을 받는 데 그친 미시시피였다. 49위는 알래스카, 48위 루이지애나, 47위 아칸소, 46위 뉴멕시코 등이다.

한편 주거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 가장 낮은 곳은 아이오와로 조사됐다.

주택 보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웨스트버지니아, 가장 낮은 곳은 뉴욕이었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시시피, 가장 낮은 곳은 뉴햄프셔였으며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루이지애나, 가장 낮은 곳은 메인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북부와 중북부 지역의 주들이 순위 상위권에 오른 반면 남부 지역의 주들은 플로리다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 | | | | | | | | | | | | |
|----|---|----|---|----|---|----|---|---|----|---|----|---|
| 1 | 입 | 담 | | 2 | 우 | 3 | 격 | 다 | 4 | 짐 | | |
| | 간 | | | | | | 납 | | 5 | 짜 | 6 | 수 |
| 7 | 판 | 8 | 각 | | 9 | 공 | 고 | | | | | 증 |
| | | 10 | 축 | 의 | 금 | | | | 11 | 다 | 기 | |
| 12 | 종 | 전 | | | | 13 | 물 | 갈 | 이 | | | |
| | 업 | | | 14 | 정 | 가 | | | 15 | 빙 | 16 | 산 |
| 17 | 원 | 18 | 전 | | 중 | | | | | | | 자 |
| | | 19 | 이 | 구 | 동 | 성 | | | 20 | 탈 | 락 | |

| | | | | | | | | | | | |
|---|--|---|---|---|---|---|---|---|---|---|---|
| 3 | | | | 2 | 6 | | | 4 | 8 | | |
| 8 | | | | | | | 1 | | | | 9 |
| | | | 9 | 4 | 7 | | | | 2 | | |
| | | 4 | | | | | 7 | 3 | | | |
| | | 3 | | | | 1 | | 7 | | | |
| 5 | | | 6 | | | | | | 1 | | |
| | | 6 | | | 3 | | | | 5 | 7 | |
| | | 8 | 5 | | | | | | | | |
| 7 | | | | | 1 | | 4 | 2 | 6 | | |